



마태복음의 ‘인물묘사’ (characterization)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복음서 독자반응비평 연구의 최근 동향

성백용 << 드류대학교 신약학 박사

1. 지금까지 전통적인 신약성서의 복음서 연구는 예수로부터 복음서 저자의 시대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본문과 저자 중심의 역사비평-자료비평, 양식비평, 그리고 편집비평-이 지배적이었다. 즉, 역사비평은 통시적인(diachronic) 관점에서 복음서 본문의 이전 전승과 역사에 관심을 갖고, 현재의 본문을 잘게 쪼개고 분석하여 복음서 본문에 나타난 역사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중요성을 탐구하였다.

그에 반해서, 1970년대 초반부터 새롭게 등장한 서사비평(narrative criticism)과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독자반응비평(reader-response criticism)은 그동안 역사비평이 간과하거나 무시하였던 하나의 내러티브로서 복음서의 문학적인 성격을 발견하고, 독자의 해석학

적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 즉, 공시적인(synchronic) 접근방법을 기초로 하는 문학비평은 복음서의 역사적인 성격을 강조한 역사비평과는 달리, 그 주된 관심을 복음서 저자의 역사적인 정황보다는 완성된 형태의 현재의 본문에 두었고, 복음서 본문에 기록된 초기 자료나 전승보다는 복음서 독자의 역할과 수사학적인 기능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문학비평은 복음서를 역사적인 관점보다는 문학적인 관점과 미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하나의 이야기(내러티브)로서 복음서가 독자의 독서경험에 어떤 해석학적인 영향을 주며, 현재의 독자는 이 복음서 이야기를 실제로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하는지를 밝히는 일을 복음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서의 문학비평이 가진 유용한 학문적인 장점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문학비평적 접근방법이 기독교 정경이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기록한 성경의 역사성과 권위를 무시하고, 특히 기독교 역사의 기초를 제공하는 신약성서와 복음서를 하나의 (허구적) 문학작품으로 전락시켰다는 잘못된 이해와 선입견 때문에, 일부 보수적인 성서학자들은 문학비평을 기독교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성서비평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성서비평도구라고 판단하고 우려와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²⁾ 물론 일부 문

1) Mark Allan Powell, *What Is Narrative Criticism?*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신약성서 서사비평의 이론과 실재를 소개한 본서에서, 포웰은 역사비평적인 성경본문이 해를 수용하면서, 문학비평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서사비평의 네 가지 기본적인 주장을 소개한다. 즉, 문학비평은 1) 완성된 형태의 현재의 본문에 초점을 맞추며, 2) 전체로서의 본문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3) 본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그리고 4) 언어행동 이론의 의사소통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2) David Rhoads, *Reading Mark Engaging the Gosp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24-33. 대표적인 복음서 문학비평 성서학자인 데이브 로드는 서사비평의 과거와 오늘을 진단하고 그 미래를 예견하면서, 문학비평이 복음서 연구에 끼친 영향을 역사비평과 대조하여 잘 지적하였다. 아울러, 그는 역사비평학자들이 서사비평과 문학비평적인 연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들—1) 본문의 통일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2) 복

학비평적 복음서 연구들이 극단적이고 과격한 문학비평이론에 기초하여 교회의 질서와 기독교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복음서 연구를 위한 표준적인 문학비평 방법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세속 학문의 문학이론들이 신약성서와 복음서 연구에 실제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해야 할 것은, 그동안 서사비평과 독자반응비평으로 대표되는 복음서 문학비평은 기존의 역사비평이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복음서의 소중한 유산인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측면과, 나아가서 현재의 독자가 복음서 본문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독자 자신의 자아가 새롭게 변화되는 독자의 독서경험을 밝히는 해석학적인 차원을 발견하고 개척함으로써, 복음서 연구의 새로운 성서해석학적인 지평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문중심적인 성서해석을 지향하는 역사비평과는 달리, 저자와 더불어 성서해석의 또 하나의 주체인 독자의 독서과정과 독서경험을 중시하는 문학비평이 첫 출발점으로 삼은 성서해석학적인 동기와 복음서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문학비평의 장점과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살린다면, 독자반응비평방법을 이용한 성경읽기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약성서와 복음서 연구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는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1980년대 이후 복음서 독자반응비평의 기본 입장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려고 하며, 특별히 서사비평과 독자반응비평의 주요 관심분야 중의 하나인 성서인물의 “인물묘사”(characterization)에 대한 주제가 최근 구미신약성서학계의 독자반응비평연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2. 우선, 독자반응비평의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그 명칭이 내포하는 것

음서 문서의 역사로부터 이탈, 3) 자율적 이야기로서 복음서 강조, 4) 통일된 이야기로서 복음서 강조-에 대해서도 잘 해명하였다.

처럼, 독자반응비평가들은 독자의 독서과정과 독서경험이 본문의 의미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저자의 저술행위에 못지않게 독자의 독서행위가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독자반응비평가들은 본문의 의미가 이미 저자에 의해서 텍스트 안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본문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인 독서행위를 통하여 그 의미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산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독자반응비평가들이 이해하는 독자는, 저자가 텍스트에 기록하거나 구성해 놓은 의미를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전통적인 개념의 독자가 아니다. 오히려, 독자반응비평가들이 말하는 독자는 저자가 텍스트에 기록하였거나 텍스트가 내포하는 의미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지만 거부하기도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독자이며, 때로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가감할 수 자율적인 독자이다. 이런 이유로 로버트 파울러(Robert M. Fowler)는 독자의 독서행위를 “역동적이고, 실제적이며, 시간적인 경험”이라고 새롭게 정의하며, 독자가 발견한 의미는 텍스트에 담겨 있는 고정된 “내용”(content)이 아니라, 독자의 독서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event)으로 이해한다.³⁾ 따라서 독자반응비평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독자가 독서과정을 통하여 경험하는 실제적인 독서행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독자와 독서경험을 강조하는 다양한 형태의 독자반응비평가들의 이론들이 있다.⁴⁾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약성서학자들이 특별히 북

3) Robert M. Fowler, *Let the Reader Understand: Reader-Response Criticism and the Gospel of Mark*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1), 41-58; Cf. James L. Resseguie, “Reader-Response Criticism and the Synoptic Gospel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52 (1984): 307-24.

4) Stephen H. Smith, *A Lion with Wings: A Narrative-Critical Approach to Mark's Gospel*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0. 스미드는 다양한 독자반응비평의 이론을 여섯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a) 수사학적(W. Booth), b) 현상학적(W. Iser), c) 주관적/심리분석학적(S. Fish, N. Holland), d) 사회학적/역사적(H. R. Jauss), e) 해석학적(E. D. Hirsch, G. Hartman). 이들 가운데 신약성서 복음서 독자반응비평에 지대한

음서 연구에 수용하여 발전시킨 대표적인 독자반응비평이론은 이저(Wolfgang Iser)의 “내포독자”(implied reader) 개념이다.⁵⁾ 이저는 하나의 텍스트는 반드시 독자의 독서행위를 통하여 구체화될 때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독자는 “내포독자”인데, 이 내포독자는 실제독자가 아니라, ‘텍스트가 구성하고 조정하며 제시하는 텍스트의 의도나 방향의 총체’를 의미하는 가상의 이상적인 독자(ideal reader)이다. 이저에 따르면, 독자는 텍스트의 불확정한 부분(spots of indeterminacy)이나 여백(blanks), 그리고 틈새(gaps)를 만날 때, 자유롭게 자신의 기대를 재구성하고, 수정 보충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를 구체화시킨다. 따라서 이저가 말하는 독자는 텍스트 안이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난 독특한 산물이다. 하웰(David H. Howell)은 이 가상의 내포독자를 가리켜 “성서비평학자가 본문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학습장치(a heuristic device)”⁶⁾라고 말한다.

영향을 끼친 학자들은 한스 로버트 야우스(Hans Robert Jauss), 볼프강 이저(Wolfgang Iser), 그리고 스탠리 피쉬(Stanley Fish)이다. 야우스는 1967년에 발표한 “문예학의 도전으로서 문학사”라는 논문에서 작품의 평가에서 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품의 이해는 독자의 “기대지평”(Ewartungshorizont)과 저자의 “기대지평”이 만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작품해석에서 독자의 경험을 강조하는 독자중심의 수용미학을 발전시켰다. 그 후에, 이저는 “내포독자”(implied reader) 개념을 통하여, 독자가 텍스트 안에 존재하지만 나름대로 자유를 가지고 반응한다는 제한적 의미의 독자활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쉬는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독자개념을 발전시켜, 텍스트의 의미를 독자가 겪은 경험의 총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후에 “해석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별 독자가 속해 있는 해석 공동체의 해석 전략이 독자의 독서과정을 지배한다고 주장하여, 독자의 해석학적인 자율성을 스스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5) Wolfgang Iser, *The Implied Reader: Patterns of Communication in Prose Fiction from Bunyan to Beckett*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idem,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이저의 내포독자 개념은 복음서 문학비평 연구에서 사용하는 독자개념과 독서경험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서사비평과 독자반응비평방법을 사용한 복음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저의 내포독자 개념을 사용하거나, 이를 발전시켜서 복음서의 문학적인 구조와 수사학적인 특징들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복음서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실제로 독자에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수사학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작업도 내포독자의 가상의 반응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서사비평을 사용한 초창기 복음서 연구서인 『이야기 마태복음』(*Matthew as Story*)에서, 킹스베리(Jack D. Kingsbury)는 이저의 내포독자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내러티브로 바라보고, 마태복음의 기독교론적인 구조와 등장인물들을 해석하였다.⁷⁾ 대부분의 독자반응비평 복음서 연구서들도 이저의 내포독자의 관점에서 복음서의 문학적이고 수사학적인 구조와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독자반응비평 복음서 연구로는 데이빗 파울러의 마가복음 연구서인 『떡 덩어리와 물고기』(*Loaves and Fishes*)와 『독자반응비평과 마가복음』(*Let the Reader Understand*)이 있으며,⁸⁾ 요한복음에 대한 연구로는

6) David Howell, *Matthew's Inclusive Story: A Study in the Narrative Rhetoric of the First Gospel*, JSNTSup 42 (Sheffield: JSOT Press, 1990), 42.

7) Jack D. Kingsbury, *Matthew as Story* (Philadelphia: Fortress, 1986). 그 외에, 이저의 내포독자 개념을 사용한 대표적인 복음서 서사비평 연구서들은 David Rhoads, Joanna Dewey, and Donald Michie, *Mark as Story: An Introduction to the Narrative of a Gospel, Second Edition* (Minneapolis: Fortress, 1999)와 R. Alan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Philadelphia: Fortress, 1983)이다.

8) Robert M. Fowler, *Let the Reader Understand: Reader-Response Criticism and the Gospel of Mark*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1), 25-58; idem, *Loaves and Fishes: The Function of the Feeding Stories of Mark*, SBLDS 54 (Chico: Scholars, 1981). 후자는 파울러의 박사학위논문으로서 편집비평과 문학비평의 연구방법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이중적인 이적사회인 오병이어(막 6:30-44)와 사병이어(8:1-10)에 나타난 '제자들의 물이해'에 대한 문제를 독자반응비평적인 관심에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두 기사에서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일한 이적사회를 두 번 경험하면서도 전혀 예수의 능력이나 기적에 대한 믿음이나 깨달음을 보여 주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파울러는 편집비평적인 관찰을 통하여, 이 두 기사가 명백하게 저자의 편집적

스텔리(Jeffrey L. Staley)의 『활자의 첫 입맞춤』(*The Print's First Kiss*)이 있다.⁹⁾ 그리고 누가행전에 대한 독자반응비평 연구는 셰퍼드(William Shepherd)의 “누가행전에 나타난 캐릭터 성령의 내러티브 기능”이 있다.¹⁰⁾ 에드워즈(Richard Edwards)는 마태복음의 내러티브와 마태복음의 제자들을 각각 독자반응비평의 내포독자 관점에서 다루었다.¹¹⁾ 나아가서, 하웰의 『마태복음의 함축적 이야기』(*Matthew's Inclusive Story*)와 앤더슨(Janice Capel Anderson)의 『마태복음의 내러티브 연결망』(*Matthew's Narrative Web*)도 내포독자의 개념을 적용한 마태복음서의 독자반응비평 연구에 속한다.¹²⁾ 최근에 포웰(Mark Allan Powell)은 마태복음 연구인 “동방의 별을 쫓아서: 성서독자반응비평의 모험”에서, 독자반응비평의 내포독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나아가서 마태복음의 “동방박사”(the magi)에 대한 독자반응비평의 접근방법을 통해서, 성서인물에 대한 다의적(polyvalent) 해석 가능성을 주장하였다.¹³⁾ 따라서 ‘내포독자’ 개념을 이용한 복음서의 내러티브 연구는 이제 서사비평과 독자반응비평을 사용하는 복음서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가장 보편화된 성서비평방법이요 친숙한 성서해석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반응비평의 내포독자 개념은 복음서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인 의도의 산물이며, 따라서 마가는 이 두 기사의 편집행위를 통하여 독자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문학적 기술인 반어법(irony)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 9) Jeffrey L. Staley, *The Print's First Kiss: A Rhetorical Investigation of the Implied Reader in the Fourth Gospel of John*, SBLDS 82 (Atlanta: Scholars Press, 1988).
- 10) William Shepherd Jr., *The Narrative Function of the Holy Spirit as a Character in Luke-Acts*, SBLDS 147 (Atlanta: Scholars Press, 1993).
- 11) Richard A. Edwards, *Matthew's Story of Jesus* (Philadelphia: Fortress, 1985); idem, *Matthew's Narrative Portrait of Disciples: How the Text-Connoted Reader Is Informed*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7).
- 12) Janice Capel Anderson, *Matthew's Narrative Web: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JSNTSup 91 (Sheffield: JSOT Press, 1994).
- 13) Mark Allan Powell, *Chasing the Eastern Star: Adventures in Biblical Reader-Response Criticis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있고, 이론적으로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내포독자가 '본문 안에 매인 독자'(reader in the text)로서 본문과 저자중심적인 성서해석을 지향하는 성향 때문에, 일부 성서비평학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복음서 독자반응비평이 독자중심의 성서해석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문중심적인 성서해석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무어(Stephen D. Moore)는 복음서의 독자반응비평이 수용한 이저의 독자가 지나치게 본문중심적인 독자의 모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이저의 독자는 텍스트의 불확정 부분을 독자적인 자유를 가지고 그 빈자리를 채운다고 주장하지만, 그 독서행위는 이미 텍스트 자체에 의해 결정되어 있으며, 독자가 의미를 산출하는 독서과정도 이미 저자에 의해서 예견되고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따라서 내포독자 개념은 독자의 기능을 "본문 내의 독자"(intratextual reader)의 기능으로 제한하고, 실제 독자(actual reader)를 본문의 의미 산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무어는 "복음서 독자반응비평은 크게 서사비평의 연장이며, 서사비평과 독자반응비평은 여전히 저자중심적인 편집비평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⁵⁾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포웰도 최근 마태복음에 대한 독자반응비평 연구에서 그동안 신약성서의 독자반응비평연구가 실제독자(a flesh-and-blood reader) 중심의 의미를 배제하고, 오히려 저자 중심(author-oriented)의 의미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⁶⁾ 즉, 복음서 독자반응비평가들은 가설의 내포독자(implied reader)를 통해서만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내포

14) Stephen D. Moore, *The Literary Criticism and the Gospel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102. 무어는 이저의 이론에서 독자가 본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저는 독서를 본문과 독자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자는 언제나 철저하게 본문의 지배를 받고 있다."

15) *Ibid.*, 73.

16) Powell, *Chasing the Eastern Star*, 22-27.

저자(implied author)가 의도한 본문의 의미만을 인정하고, 실제 독자(actual reader)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자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의적 해석들(polyvalent interpretations)을 배제하거나, 시공간적으로 하나의 본문에서 해석 가능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⁷⁾ 이렇게 복음서 독자반응비평의 내포독자는 ‘본문 내의 독자’(intratextual reader)라는 이론적인 한계 때문에, 최근 성서문학 비평학자들과 일반문학 비평가들 사이에서 보다 넓은 의미의 독자 개념과 그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¹⁸⁾ 또한, 최근 진보적인 성향의 포스트모더니즘 성서비평이론가들은 독자반응비평의 ‘본문 내의 독자’(intratextual reader)의 개념을 포기하거나 수정하여, 독자의 자율성과 정확을 지나치게 강조한 독자의 관점에서 독자적인 성서해석을 시도하고 있다.¹⁹⁾

3. 최근 복음서 독자반응비평 연구에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성서의 인물들(characters)의 “인물묘사”(characterization)에 대한 연구이다.²⁰⁾ 서사비평과 독자반응비평의 주요 주제인 인물묘사에 대한 연구는 독자가 독서과정에서 텍스트에 묘사된 사실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서의 인물들을 재구성하여 해석하는지, 그 구체적인 적용과 사례

17) *Ibid.*, 17-27.

18) Berbard C. Lategan, “Introduction: Coming to Grips with the Reader,” *Semeia* 48 (1989): 3-19; William S. Vorster, “The Reader in the Text: Narrative Material,” *Semeia* 48 (1989): 21-39.

19) Cf. Fernando F. Segovia and Mary Ann Tolbert, eds., *Reading from this Place, Volume 1: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United Stat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idem, *Reading from this Place, Volume 2: Social Loc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in Global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R. S. Sugirtharajah, ed., *Voices from the Margin: Interpreting the Bible in the Third World* (Maryknoll, NY: Orbis Books, 2006).

20) Fred W. Burnett, “Characterization and Reader Construction of Characters in the Gospels,” *Semeia* 63 (1993): 3-28; David Rhoads and Kari Syreeni, eds., *Characterization in the Gospel; Reconceiving Narrative Criticism*, JSNTSup 18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들을 잘 보여 준다. 서사비평에서 인물묘사는 저자가 내러티브에 기록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복음서의 인물(들)을 다시 재구성하여 이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독자반응비평가들은 서사비평과는 달리, 독자가 복음서의 인물을 재구성하여 인물묘사를 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요소, 즉 저자가 텍스트에서 제공하는 사실들(textual indicators)과 독자의 독서과정(reading process)을 둘 다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독자반응비평가들은 본문상의 인물을 단순히 플롯의 전개를 위한 보조역할로 간주하거나, 저자가 내러티브에 제시한 정보를 토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인물을 독자의 독서과정을 통하여 본문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와 대화할 정도로) 개인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바라봄으로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물로 이해한다. 따라서 복음서의 인물은 그가 설사 본문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일지라도, 독자의 독서과정을 통하여 얼마든지 상당한 수준의 개인(individuality)의 위치를 갖게 되며, 독서행위의 결과에 따라 더 이상 플롯의 전개를 돕는 보조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personality)을 갖춘 인물로 태어난다.

그동안 복음서의 인물과 인물묘사에 대한 논의들은 킹스베리가 보여준 서사비평적인 인물묘사 모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야기 마태복음』(*Matthew as Story*)에서, 킹스베리는 마태의 인물들을 내러티브에 묘사된 인물들의 “범례적 특성들”(a paradigm of traits)에 따라 재구성하고, 이들을 각각 세 가지 범주의 그룹, 즉 “단순형”(flat), “다중형”(round), 그리고 “고정형”(stock) 인물들로 분류하였다.²¹⁾ 그의 마태복음의 내러티브 분석에 따르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은 ‘단순형’ 인물에 속하고,

21) Kingsbury, *Matthew as Story*, 9-10. “이야기 마태복음”(*Matthew as Story*)에서, 킹스베리는 세이모 챗만(Seymour Chatman)의 “이야기와 담론”(*Story and Discourse*)과 포스터(E. M. Forster)의 “소설의 양상들”(*Aspects of the Novel*)에 나오는 소설 인물 이론에 기초하여, 마태복음의 인물들을 크게 세 가지 인물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예수와 제자들은 ‘다중형’ 인물에 해당하며, 탄원자들과 같은 소수 인물들은 ‘고정형’ 인물그룹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서사비평적인 인물묘사 접근방식은, 저자가 독자에게 영향을 주려고 의도한 인물묘사와 플롯 내에서 성서인물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역학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이끄는 유용한 비평방법이다. 그러나 스티븐 무어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서사비평적인 인물묘사는 지나치게 ‘플롯 중심의’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독자가 독서과정에서 성서인물들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해석학적인 반응들을 무시하거나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²²⁾

이러한 ‘플롯 중심적인’ 서사비평의 접근방식에 대하여, 독자반응비평가들은 내러티브상의 인물들을 재구성할 때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독자의 인물묘사 과정에서 유동성(fluidity)과 다양성(multiplicity)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인물중심적이고 독자지향적인’ 인물묘사 이론을 지향하였다. 이와 같이 독자중심, 인물지향적인 인물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독자반응비평 성서학자들의 움직임은 1993년 성서신학간행지인 『세메이아』(Semeia) 63호에서 특집으로 성서인물묘사 이론과 실재를 지상에서 논의하였으며, 1999년에 스칸디나비아의 신약성서 문학비평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한 논문집 『복음서의 인물묘사』(Characterization in the Gospels)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세메이아』 63호에 실린 주제논문에서, 버넷(Fred W. Burnett)은 성서인물묘사를 시도할 때, 텍스트의 인물묘사 부분과 아울러, 독자의 독서과정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성서인물의 인격화(personality) 과정과 독자적인 개성(individuality)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는 처음에 제자들의 구성원으로 내러티브의 플롯을 돕는 기능을 하지만, 독자의 독서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제자그룹의 구성원의

22) Moore, *Literary Criticism and the Gospels*, 15.

신분을 초월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로 독자에게 다가온다.²³⁾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스칸디나비아의 신약성서학자인 메렌라티(Petri Merenlahti)도 성서인물들은 독자의 독서과정에서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개인”의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한다.²⁴⁾ 즉, 성서의 인물들은 첫 시작단계의 독서과정에서는 단순히 플롯을 위해 존재하는 대리인이나 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어지는 독서를 통하여 완전히 개인적인 특성을 가진 보다 더 복잡한 인물로 태어난다. 따라서 메렌라티는 성서의 인물이 독자에 의해서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독자가 본문의 인물을 이해할 때, 성서의 인물은 독자의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자의 이데올로기 분석이 성서의 인물묘사 과정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맥크라켄(David McCracken)은 “경계 선상에 있는 성서인물”(“Character in the Boundary”)라는 논문에서, 미하일 바흐친의 문학이론을 적용하여 발전시킨 인물 이론을 가지고, 성서인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다.²⁵⁾ 그는 성서의 인물이 독자와 저자의 경계 선상에서 관계적으로 그리고 대화상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성서의 인물들을 “관계적 개인들”

23) Bumett, “Characterization and Reader Construction,” 22-23.

24) Petri Merenlahti, “Characterization in the Making: Individuality and Ideology in the Gospels,” in *Characterization in the Gospels*, 49-50.

25) David McCracken, “Character in the Boundary: Bakhtin’s Interdividuality in Biblical Narratives,” *Semeia* 63 (1993): 29-42. 미하일 바흐친은 러시아의 문학이론가로서 문학작품의 인물들은 독자와의 대화적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인물로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즉, 그의 문학이론에 따르면, 문학작품의 인물들은 저자가 진술한 본문 속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종결되지 않은 미결정 상태로(open-ended)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독자의 독서과정을 통하여 참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 태어난다. Mikhail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interdividuals)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해하였다. 즉, ‘관계적 개인’으로서 성서의 인물들은 전혀 단순하거나 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은 관계적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지경을 초월하여, 독자와 만나는 현재의 지점에서, 저자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리고 다른 인물들과의 대화 속에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성서의 인물들은 중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위기의 순간에 독자와의 대화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다시 태어난다. 이와 같이, 맥크라켄은 성서의 인물을 “관계적 개인”이라는 새로운 인물 개념을 가지고 정의함으로써, 복음서의 인물들이 권위적인 저자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의 독서과정에서 새롭게 재구성된다는 관점에서 성서의 인물이 가진 대화적이고 관계적인 양상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포웰은 최근 마태복음에 대한 독자반응비평 연구서인 『동방의 별을 쫓아서』(*Chasing the Eastern Star*)에서, 마태복음의 동방박사를 마태의 대조적인 메타포인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를 통하여 재구성하면서, 독자의 독서과정에서 성서의 인물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의 해석이 모두 가능한 양면성(ambivalence)을 가진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⁶⁾ 즉,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런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점에서 “무지한 자”이다. 이들은 또한 헤롯왕이나 종교지도자들처럼,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계시한 “무지한 자들”이다(마 11:25). 그러나 그들은 종교지도자들과 같이 소위 “지혜로운 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에게 경배한 참된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포웰은 동방박사를 “무지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가진 양면적인 인물로 바라봄으로서, 다른 마태의 인물들도 양면성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

26) Powell, *Chasing the Eastern Star*, 154-55.

다. 즉, 독자는 아직 ‘지혜로운 자’ 나 ‘무지한 자’로 결정되지 않은 채 독자의 판단과 이해를 기다리고 있는 성서의 인물들의 양면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최종적인 모습을 결정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독서반응비평학자들은 성서의 인물을 저자가 내러티브에서 의도한 플롯 중심적인 인물묘사를 따르기보다는, 독자와 성서인물 중심적인 관점에서 성서의 인물은 독자의 독서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인격과 개성을 가진 인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해석학적인 다양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물묘사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이런 독자반응비평의 시도가 저자가 내러티브에서 의도한 성서의 인물묘사의 역사성과 객관성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독자는 저자가 내러티브에서 충분히 언급하지 못하고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는 성서인물들의 심리적인 갈등상황이나 역사적인 정황을 독서과정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공감하고 성서인물을 통한 간접체험을 통하여 새롭게 성서의 인물과 독자의 삶의 자리를 재구성할 수 있다.

4. 지금까지 필자는 복음서 독자반응비평이 이론적 기초로 삼은 이저의 ‘내포독자’ 개념과 최근 독자반응비평가들의 ‘인물묘사’ 이론에 대한 연구동향들을 살펴보았다. 필자는 이상의 독자반응비평에서 방법론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느끼고, “마태복음의 인물과 독자의 재구성”(Character, Reader, and Dialogic Interaction)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박사학위논문에서, 마태복음의 독자들이 마태의 주요 인물들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고, 교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문학비평이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자반응비평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독자가 마태의 인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실례를 잠시 살펴보는 것으로 복음서 독자반응비평의 최근동향에 대한 소고를 마치려고 한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의 인물묘사 연구는 대부분 마태의 주요 인물들인 제자들과 종교지도자들과 탄원자들을 서사비평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하여 이해하였다. 서사비평의 인물묘사에 따르면, 마태의 제자들과 종교지도자들과 탄원자들은 독자의 독서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독자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저자의 의도나 기존의 해석의 틀을 따라 마태의 인물들을 재구성하여 이해한다.²⁷⁾ 즉, 킹스베리가 “이야기 마태복음”에서 기술한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로서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가진 제자도의 모델로 이해한다. 종교지도자들은 예수의 사역의 적대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심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구제불능의 사악한 인물들로 바라본다. 아울러 탄원자들도 내러티브에서 그 비중이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마태의 인물들로 간주한다. 이렇게 서사비평적인 인물기술은 마태복음의 주요 인물들을 이미 저자의 정해진 해석의 틀에 따라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을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따라서 마태복음의 인물들은 보다 긴장감 있고 극적인 모습으로 독자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독자에게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완벽하게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즉, 마태의 인물기술에는 독자반응비평학자들이 말하는 미확정 부분(spot of indeterminacy)도 있고, 저자가 미처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여백(blank)이나 틈새(gap)로 남겨 둔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독자는 저자가 미처 제공하지 못한 부분들을 독서과정을 통하여 마태의 인물들과 씨름하면서, 그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고, 독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태의 인물들을 만나서 대화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숨겨진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종결부분인 28장 16-20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

27) Clifton C. Black, *The Rhetoric of the Gospel: Theological Artistry in the Gospels and Acts* (St. Louis: Chalice Press, 2001), 25-33.

막 지상명령을 듣고도 순종하고 따르기는커녕, 이를 의심하고 주저하는 (ἐδίστασαν) 모습을 보여 준다.²⁸⁾ 이것이 마태가 기술하는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 인물기술에 따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길로 갔는지는 끝까지 독자에게 여백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자에 대하여 예수나 제자나 내레이터도 전혀 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는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는 제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독자 자신도 예수의 마지막 지상명령 앞에서 예수의 제자로 책임 있게 결단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반응비평에 따른 성경읽기는 독자에게 성서의 인물들을 성급하게 저자의 의도대로 그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로 독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해석을 기다리는 성서의 인물들을 독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 책임 있게 행동하고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 성백용 숭실대학교(B.A.)와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Th.M.)를 나와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Th.M.)과 드류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28) Fred W. Burnett, "The Meaning of 'Doubt' in Matthew 28:17: A Narrative-Critical Reading," in *Literary Encounter with the Reign of God*, edited by Sharon H. Ringe and H. C. Paul Kim (New York and 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168-76.